

쇼토쿠 태자와 호류지 절

쇼토쿠 태자(574~622년)는 일본의 제31대 천황인 요메이 천황(~587년)의 황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으며, 어른이 돼서는 불교에 관한 폭넓은 강의를 펼치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대륙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도입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초기 고대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17조 헌법'을 초안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고전사상과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 조문은 화합(和)의 존중, 불교로의 귀의, 관리들의 올바른 윤리적 행동, 사람들의 충성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쇼토쿠 태자에 대한 숭경심은 그의 사후에도 꾸준히 높아져 쇼토쿠 태자는 불교의 성인으로 여겨지며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류지 절은 원래 요메이 천황이 자신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사찰을 건립하고 의약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상을 모시기로 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황이 불과 쟁위 2년만에 붕어하면서 발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607년경 스이코 천황(554~628년)과 쇼토쿠 태자가 요메이 천황의 유지를 받들어 호류지 절을 창건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원에는 약 1,4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창건 당시 호류지 절은 새로운 문명의 선구적인 존재였습니다. 탁 트인 전원 풍경 속에 지어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군은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과 신자들을 크게 경탄시켰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호류지 절 창건 당시의 건물군은 670년의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건물은 화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쇼토쿠 태자와 같은 크기로 만든 석가여래상을 본존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호류지 절은 아스카 시대(593~710년)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당시 중국과 조선 건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토쿠 태자의 유산은 가람 내의 수많은 건축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인 유메도노(夢殿, 몽전)에는 쇼토쿠 태자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이는 구세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구세관음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1993년에 '호류사 지역의 불교기념물'로서 일본에서는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